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여호와의 친밀하심

성경: 시편 25편 14-22절

Tag:

14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16 주여 나는 외롭고 피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 25:14-22)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절절한 신앙고백이요, 간증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고 신뢰하였으며, 의지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다.

아마 이런 태도는 다윗의 일생동안 계속되었을 것이다.

아무래도 다윗은 군인이었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이해관계가 같거나 다른 수 많은 사람에게 싸여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대놓고 거짓을 말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었고, 겉으로는 아닌척 하지만 가슴 속에는 반역을 품고 기회를 엿보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내심 이런 상황들이 자신을 긴장시켰고, 분위기

가 이러 휘청 저리 휘청거리면서 자신의 입지 또한 우왕좌왕이었을 것이다.

또한 궁에는 다윗 가문보다 훨씬 부요한 측근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들은 다윗의 가난하고 천한 신분을 들먹이면서 왕에게 아첨하는 말도 만들어 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25편의 절절한 고백이 다윗 자신의 처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고백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인생의 치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인 양 돈에 눈이 멀어있고, 권력이 나를 구원할 것인 양 권력에 눈이 멀어있고, 기술이 나를 구원할 것인 양 공부하는데 눈이 멀어있다.

또는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사람을 찾는데,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 기술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재미때처럼 몰려 다닌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 없다. 다윗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윗은 시를 짓고, 노래를 지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 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음으로 다윗이 간절하게 구하는 구원은 죄의 사슬로부터의 구원이다. 다윗도 젊어서 저지를 죄가 있었으리라.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도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생이 가지는 고민일 것이다. 욕도, 자신의 처참한 불행을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26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피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욥13:26)

철없던 나의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 나는 가망 없는 것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망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 속에 잠기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잘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열심히 했고, 정성을 쏟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렸고,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요즘은 과거만큼 절체절명의 시대는 아니다. 과거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도 무산되는 일이 많았다.

사람들은 뭔가 기대했던 일들이 무산되었을 때 과거의 삶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 과거의 일이다. 자신의 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과거를 정리하고 다시금 출발하지 않으면 해답은 없다.

포기하는 순간이 더 큰 죄가 되고 남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공공의 죄악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묻지마 살인)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든,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 선은 악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있다. 선함은 악함으로 인한 고통을 대신 감당한다. 왜냐면 선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시다.

7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 25:7)

선하신데 가장 강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고,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마법을 부리셔서 나의 죄악을 꿈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만드시진 않으신다. 다만 실패하고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 두 번다시 하나님 입으로 나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비밀에 대한 고백이다.

14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비밀-소드’이라는 단어다.

- 여호와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 친밀한 자들이란 사실 서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다.
- 비밀이란 적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사실 복음이다. 다만 이것이 왜 비밀이 되었을까? 그것은 교만한 자들이 그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 그들은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친밀하다는 것은 비밀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여호와의 비밀은 멀리서 보는 것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는 뜻이다. 그래서 비밀이 된다.

-멀리서 봐도 보이고, 가까이 가서 봐도 보이긴 하는데, 경외하는 중에 봐야 비로소 비밀이 보인다. 멀리서 본다는 것이 곧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께는 가까이 다가 갈수록 더욱 경외하는 것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비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가능하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

19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구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다윗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의미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달랐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남의 치부를 들추며 자신의 치부에 대해서는 뻔뻔하다. 그리고 떼를 지어 다니며, 남을 비난하는 재미에 빠져 살아가다. 나라가 나라를 비난하고, 정당이 정당을 비난한다. 남을 수치를 까발리느라 정신이 팔려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줄도 모른다. 그런 것들이 인생들의 수치가 된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수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다. 불안에 떨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적들 앞에서 겁먹고, 일이 무산될까 걱정하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남이 나를 비난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수치가 된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방황이 없는 영혼은 세상에 없다. 다만 다윗에게는 솔루션이 있다. 그는 이것을 구원으로 해석했다.

20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는 항상 주께 피하였다. 누군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주께 피하였다. 그것은 되받아치며 함께 비난하는 것보다 더 구원에 가깝다.

그는 불안하기 시작하면 주께 피하였다.

그는 겁이 나면 주께 피하였다.

그는 걱정이 생기면 주께 피하였다.

그는 안절 부절 할 때 주께 피하였다.

왜냐면 그래야 영혼이 방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 곧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비난을 듣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혼이 방황하는 것이 곧 수치다.

왜냐면 모든 비난은 틀린 말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정말로 잘못된 일을 했다면 비난하기 보다는 진지한 대화를 건네왔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한 짓이다.

다윗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는 그것이 곧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얻는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